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 함께 이겨내자” 제주도의회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 부의장,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Stay strong (견뎌내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지난 3월 외교부가 시작했으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거품으로 손을 씻는 로고 위로 ‘Stay strong’이란 문구를 적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민호 서울시의회의장의 지명을 받은 좌남수 의장은 ‘Stay Strong,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합니다!’는 메시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 직원과 직원 가족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수칙 준수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다음 주자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문대림 JDC 이사장, 김성훈 제주 한라대학교총장을 지명했다.

제3회 제주도니 공모전 수상작 11편 선정

제주양돈농협은 최근 ‘우리의 제주도니 브랜드 최고의 위치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라는 주제로 제3회 제주도니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11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이미지, 동영상, 음원 부문 등 총 56편의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가 응모됐으며, 지난달 26일 1차 내부평가와 31일 최종 심사위원회 평가 등 총 2차 심사에 걸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제주양돈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주양돈농협은 수상 이후 절차를 메일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권진 조합장은 “수상 작품들은 제주도니의 홍보 광고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양돈농협 제주도니를 통해 품질 좋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맨스클럽 심사일반 모아 성금 기탁

브로맨스클럽은 지난 3일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1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브로맨스클럽은 외도지역 선후배들이 모여 만들어진 골프동우회로 이번에 회비를 모아 기부를 실천했다. 회원인 김준수 남건종합건설 대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마음초 학생들 제주어 그림책 읽기



한마음초등학교(교장 현금순)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3일 1-6학년 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제주어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흥진숙 작가(제주그림책연구회 회원)를 강사로 초빙, 제주의 옛 문화와 제주어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동 명주마을 환경정화의 날 운영



제주시 연동주민센터(동장 문재원)와 연동 명주마을(9동장 현용해)은 지난 5일 마을주민과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해 명주마을 환경정화의 날을 운영하고 마을안길과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잡초 제거, 나무 정전 등 쾌적한 마을 만들기 위한 환경정비활동을 벌였다.

신임 도 경제정책과장에 하상우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 경제정책과장에 하상우 서기관(37·사진)을 임용했다.

하상우 과장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5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장관실, 운영지원과 등에서 근무했다. 도는 하상우 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한 주요 업무 추진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좌농협 조합원 자녀 50명에 장학금



구좌농협(조합장 윤민·사진)은 지난 4일 조합원 자녀 5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지역사회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행동지침’을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윤민 조합장은 “구좌농협은 1995년부터 장학금 지원사업을 펼쳐 2019년까지 총 683명에게 4억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사회 주역인 조합원 자녀들을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바다보전협의회 해양쓰레기 수거



(사)제주특별자치도바다환경보전협의회(회장 한광수)는 지난 5일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더클라우드호텔 맞은편 해안가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3여t을 수거했다.

동정



대정읍 태풍 피해 현장 방문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대정읍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복구계획 및 지원방안을 모색.



세계유산축전 개막 기념행사 참석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일 제주발담테마공원 인근에서 개최된 ‘2020 세계유산축전 개막 기념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

제주대 김치완 교수 ‘섬 인문학’ 참여



제주대학교가 ‘섬 인문학’ 국책 연구 사업에 참여한다.

제주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도 인문한국 플러스(HK+)사업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 ‘섬 인문학, 인문지형의 변동과 지속가능성’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선정됨에 따라 철학과 김치완(사진)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사업단은 7년 간 2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인문학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섬 지역과 네트워크를 추진, 학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업단은 섬 인문지식 연구팀, 섬 생태문화다양성연구팀, 섬 네트워크 연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섬 인문지식 연구팀 삶과 철학 분야 공동연구원인 김 교수는 해양문화를 선도해온 주제(avant-grade)로서의 섬과 섬사람, 유배·차별·고립·사멸의 타자로서 섬과 섬사람을 인문지형의 변동으로 영역화 하고 계열화하는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대학교병원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은 지난 4일 병원 4층 회의실에서 장용목 법무사 장용목 사무소 대표, 강경범 우림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용재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 주요사업 추진 과정과 민원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며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과 부패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 20,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